

# Anti-Decoration Culture Resident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Keum-Seok Chae\* · Masuda Yoshik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Gakushuin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aesthetic sense from the spiritual root of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and find the aesthetic meanings inside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is study considered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design from 1970 to 2000 to figure out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1. surveying the historical change about the aesthetic sense of Japanese anti-decoration culture, 2. deducing the distinctive aesthetic ideology from the anti-decoration culture 3. finding aesthetically the inside meaning of anti-decoration culture in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conclusion on this study is as the followings.

With the continuousness with Zen, anti-decoration culture created a unique aesthetic through asian mentality like Taoism and Buddhism which had interacted Japanese. Imbalance, imperfect and irregularity which are the essence of Anti-decoration culture are recognized as indecent beauty of Karl Rosencranz through the concept of informal, uncorrect and modification.

Anti-decoration culture has three aesthetic ideology; faintful aesthetics, ambivalence aesthetics and playful aesthetics. First, the faintful aesthetics implies the aesthetic ideologies of Wabi, Sabi from Heian period, connecting other

aesthetic ideologies of Heian period such as Aware, Monono-aware, Yu-Hyun, and it appears the aesthetic sense to be natural beauty, simplicity, minimalism and temperance. Second, ambivalence aesthetics is based on nothingnes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multivocal and variableness without biased view. Third, playful aesthetics has the meaning of humorous, witty and mischievous which is the basic factor of Japanese formative arts. It contains inner resources and sincerity and it often appears on the contemporary Japanese fashion.

The aesthetic range of this study are the beauty of simplicity, poverty, incompleteness, vagueness and humor. First, beauty of simplicity is composed of minimal lines and area through strict temperance and elimination. This caused the exclusion of the details and decoration which focused on simplicity using least area and straight lines. Second, beauty of poverty came from the aesthetic concept of Wabi which means honorable poverty and plainness. This made the costumes' inner part more decorative than the outside and made an entrance of anti-couture fashion. Third, beauty of incompleteness means emptiness which is within the range of possibility. It could be described as unfinished the hem line and cut fabrics asymmetrically and therefore make

the observer to complete the work. Forth, beauty of vagueness could be explained as incorporeal, colorlessness and voiceless. This appears as having no concerns with our body by using various draping, dark and unvivid colors and androgenous look in fashion which shows the ambiguousness of sex. Fifth, Okashi which was the middle ages in Japan, shows the vein of humor in anti-decoration culture. This appears in fashion as unbalance and falsifying shapes by applying parody and tromp l'oeil and offer simple and abstract humor.

As a result, anti-decoration culture does not mean the opposite of decoration culture, but accomplishes extreme artificial beauty by strict temperance and elimination. Also it is concerned as intentional poverty of decorative effect.

#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반꾸밈 미학

채금석\* · 増田美子

숙명여자대학교\* · 學習院女子大學

본 연구는 현대 일본 패션에 내재한 그들의 반꾸밈 문화에 내재한 정신사상의 근원을 바탕으로 반꾸밈 문화를 구성하는 미의식의 특징을 도출하고 일본의 현대 패션과 연관하여 그 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범위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현대 일본 패션을 연구범위로 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일본의 반꾸밈 미의식에 내재된 정신사상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구성하는 대표적 美的理念을 도출함으로써 일본 현대 패션에 내재한 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禪과 연관하여 評價되고 있는 '반꾸밈'계 문화는 老莊思想과 佛教의 東洋的情神思想이 보완적으로 作用하여 日本人특유의 主觀的 变안과 해체를 통해 獨自의 美의식을 창출하였다.

둘째, 불균형성, 불완전성, 불규칙성의 일본 반꾸밈 미학의 본질은 미의 풍부한 이상성을 주장한 Karl Rosencranz의 醜에 대한 '몰형식성', '부정확성', '변형'의 개념정의를 통해 醜의 美로 인지된다.

셋째, 반꾸밈 文化的 美的理念은 枯淡의 美學, 臟의 美學, 諧謔의 美學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枯淡의 美學은 종교적 空, 虛, 無로 통하는 중세 헤이안 시대의 와비, 사비의 美의 이념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헤이안 시대의 미적이념인 아와레, 모노노아와레, 유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에는 극도의 압축, 생략된 간소함, 빈곤함 속에 내재된 품격미, 세월에 대한 퇴행 현상을 時·空間의 이중구조를 形成하는 美로 승화시킨 미의식이다.

2) 臟의 美學은 노자이래 客觀的 美의 인식을 포기한 비명석적 東洋의 우주관의 二元論性을 거

부하는 化負分析的, 定性分析的, 日本特유의 양면가치성으로 이는 中世 幽玄과 관련이 깊다. 이에는 역시 유·불·도의 東洋의 우주관이 흐르고 있다.

3) 중세 헤이안 시대의 미적 이념 오카시에는 감정(우아)과 익살의 두 개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익살의 오카시에 내재된 해학성은 형태의 왜곡, 비합리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일본 조형의식의 기본적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반꾸밈 미학의 미적 범주로서 단순미, 빈곤미, 미완의 미, 도회미, 해학미로 정리하였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단순미는 엄격한 절제와 제거를 통해 최소한의 선과 면으로 구성되며, 이는 복식 외형에서 최대한의 절제와 억압을 통해 디테일의 장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최소의 면적과 직선적인 동체의 수직성만을 강조한 단순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빈곤미는 중세의 幽玄, 有心의 미적이념에서 비롯된 와비미학에 의한 것으로 청빈과 질박한 실체를 아름답게 간주하는 미의식이다. 이는 복식의 외형보다 내부를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면서 외부는 해침, 꼬임, 잡아 찢기, 뒤집기, 주름, 매듭짓기 등의 구성으로 서구 오뜨쿠튀르적 구성의 미에 상반되는 안티쿠튀르 패션으로 등장하였다. 즉 최소의 장식으로 최대의 장식미를 지향하는 와비 미학의 추구이다.

3) 미완의 미는 虛의 여백을 통한 이미지 세계의 창출은 無慾을 통한 心身의 자유의 지향이며 모든 존재의 실현 가능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끝마무리를 미완성으로 남겨 놓거나, 비대칭 선 처리된 힘 라인의 올을 풀어 해친다든가, 컷팅 상태로 마무리하여 보는

이의 상상력으로 그 조형이 완결된다. 이는 정형화 된 구축적 형태의 특성을 갖는 오투쿠튀르적 패션에 反하는 앤티쿠티르 패션 등으로 평가되었다.

4) 兩極의 二元論을 거부하는 도가적 측면이 내재한 龐의 美學은 속이 깊고 미묘해 알아차릴 수 없는 禪美學의 幽玄과 상통하며 이는 無形, 無色, 無聲의 도회미로 설명 될 수 있다. 이는 복식에서 인체와 무관한 다양한 드레이프의 형태의 모호성, 어둡고 눈에 잘 띠지 않는 色의 모호성, 性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性의 모호성으로 Androgenous look으로 나타난다.

5) 중세의 오카시는 禪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특성으로 일본 미술의 조형의식에 기초하는 해학성으로 반꾸밈 미의식의 단면을 나타낸다.

이는 패러디와 유사한 형식의 '견주기 見立て', 트롱프레유와 유사한 '시각적 트릭'의 특징은 복식에서 형태의 왜곡, 극단적인 양감의 대비에 의한 불균형, 기존 상식을 초월한 의외적 부풀림 등으로 추상화되고 단순화되어 낙천적인 유희미를 선사한다.

# 日本现代服饰內在的反裝飾美学

蔡今錫\*・増田美子

淑明女子大學校\*・學習院女子大學

本研究就日本现代服饰內在的反裝飾文化予以考察。為此，1.就日本反裝飾美意識內在的精神思想特徵進行研究，2.提出反裝飾文化的主要美理念，3.與日本现代服饰聯繫，要分析日本现代服饰內在的美學意義。

‘反裝飾’文化一般與禪思想有關係，道家、佛教的東方精神思想對禪文化起了補充作用，通過日本人特有的主觀的改編和解體過程，創造了獨特的美意識。日本反裝飾美學是不均衡性、不完全性和不規則性的美學，通過卡爾①羅森克朗茨(Karl Rosencranz)對魂解釋的概念，可知道反裝飾美學的本質是魂的美，他說，魂就是以‘沒有形式性’、‘不正確性’和‘變形’3個概念來理解。

反裝飾文化的美理念可分3種美學概念來進行考察，是不俗優雅的美學、朦朧的美學及諧謔的美學。第一，不俗優雅的美學通過日本平安時代的Wabi(日：佗)，Sabi(日：寂)的美理念而形成，Wabi，Sabi的美理念是指有宗教意義的空白、虛構和沒有，與真心(まこと)，悲哀(あわれ)，對美丽的感受性(もののあわれ)，幽深等古代中心精神有關。這種美意識使極大的壓縮，省略的簡化，貧困里的品格，以及對歲月的推行現象，升華為形成時空間的雙重結構的美麗。第二，老子思想以來，東方宇宙觀拋棄了客觀地認知美麗。朦朧的美學，拒絕不明晰的東方宇宙觀的二元論性，具有定性分析和日本固有的兩面價值性的特徵，與日本中世幽深思想有密切關係。這裏也涵有儒、佛、道三家的宇宙觀。第三，Okasi(日：可笑し)是一種日本中世平安時代的美理念，含蓄感情(高雅)和幽默兩種概念。其中，幽默的Okasi包涵的諧謔性有兩個特徵，一是歪曲形態，二是非合理的不均衡，被評為日本造型意識的基本因素。

反裝飾美學的範圍可分為單純美，貧困美，未完

的美，諧謔美及諧謔美，各有如下特徵：第一，單純美：通過嚴格的節制和排除，以最小的線和面積而構成，在服飾的外形上，通過最大的節制和壓抑辦法，強調單純性。第二，貧困美：它是從由中世幽深和有心思想起源的Wabi美學來的，這種美意識把清貧和朴素的實體看作美麗。比裝飾服飾的外形更重視豪華裝飾服飾的裏面，出現與西方的高級定制時裝(Haute Couture)式結構美麗相反的反定制時裝(Anti Couture)服飾。利用最小的裝飾得到最大效果的裝飾美，這就是Wabi美學追求的目標。第三，未完的美：利用空白創造形象世界，是通過無私得到身心的自由，意味着可實現所有存在的東西。這種美在反高級定制時裝的反定制時裝上，表現為不完成最後加工，或拆散非對稱折邊的層。第四，朦朧的美學含蓄着拒絕二元論的道家思想，與深不可測的禪美學深奧思想相通，能用無形、無色和無性的諧謔美來說明。這種美在服飾上體現男扮女裝、女扮男裝的服裝形式(Androgenous look)，具有與人類無關的各種褶子(Drape)型的形態模糊性，黑暗而不顯眼的顏色模糊性，不能分明性本體的性模糊性。第五，日本中世Okasi具有反裝飾美學的自由和舒服性的特性，在日本美術的造形意識上成為基本因素的諧謔性，顯示出反裝飾美意識的一面。這在服飾方面，利用歪曲形態，由極端的重量差別而產生的不均衡，以及超越常識的意外性等辦法，抽象化和簡化，最後提供樂觀的遊戲美。

總之，反裝飾美學不是與裝飾文化相反的概念，而是通過極大的節制和省略辦法而誕生的簡化美，創造最高潮的人工美，這是由徹底計劃的‘有意圖的貧困’、虛構的貧困的表演而凝結的裝飾的效果。

# 現代日本のファションに内在した反飾りの美学

蔡今錫\*・増田美子

淑明女子大學校\*・学習院女子大学

本研究は現代日本のファションに内在した反飾りの文化について考察するため

1. 日本の反飾り美意識に内在した精神思想の特徴を調べながら
2. 反飾りの文化を構成する特徴的、美的理念を導出し
3. これを日本の現代ファションと関連してそれに内在したその美學的な意味を究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禪と連関して評価されている‘反飾り’系文化は道家、仏教の東洋的精神思想が補完的に作用され、日本人特有の主觀的な翻案と解体を通じて獨自的な美意識を創出した。不均衡性、不完全性、不規則性の日本反飾り美學の本質は美の豊かな理想性を主張したKarl Rosencrantzの醜に對した‘沒形式性’、‘不正確性’、‘変形’の概念正義を通して醜の美として認知される。

反飾り文化の美的理念は枯談の美學、臘の美學、諧謔の美學から探ることができる。まずは、枯談の美學は宗教的な空、虚、無へ通じる中世平安時代のわび、さびの美的理念を通じて形成され、平安時代の美的理念、哀れ、もののあわれ、幽玄とその脈をともにする。これは極端に壓縮、省略された簡素、貧困の中に内在された品格美、歲月に對する退行現象を時空間的な二重構造を形成する美と昇華させる美意識である。

二番目に、臘の美學は老子以來、客觀的な美的認識を諦めた非明晰的、東洋的な宇宙觀の二元論性を拒否する化負分析的、定性分析的、日本獨特の兩面価値性であり、これは中世の幽玄と深く關連している。これにはやはり儒、佛、道の東洋的な宇宙觀が漂っている。三番目に、中世平安時代の美的理念オカシには感情（優雅）と滑稽の二つ

の概念が存在する。この中で滑稽のオカシに内在された諧謔は形態の歪曲、非合理的な不均衡が特徴で日本の造形意識の基本的な要素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

反飾り美學の美的範疇として單純美、貧困美、未完成の美、都會美、諧謔美に分類し、その特徴を見てみると次のようだ。まず、單純美は嚴格な節制と除去を通じて最小限の線と面積で構成され、複式外形から最大の節制と抑壓を通じて單純性を強調している。二番目に、貧困美は中世の幽玄、有心の美的理念からのわび美學によるもの、清貧と質朴な實体を美と見なす美意識である。これは複式の外形より内部をもっと華麗に飾りながら西歐オートクチュール的な構成の美と相伴するアンチクチュールファッションに登場した。つまり、最少の裝飾で最大の裝飾美を志向するわび美學の追求である。三番目に、未完成の美は、虚の余白を通じたイメージ世界の創出は無欲を通じた心身の自由への志向であり、全ての存在の實現可能態としての意味を持つ。これは仕上げを未完成にしたり、非對稱線の處理でヘムラインの糸を解くなど定型的な構築的形態の特性を持っているオートクチュール的なファションに反するアンチクチュールファッションなどで評価された。四番目に、兩極の二元論を拒否する道家の側面が内在した臘の美學は奥が深く微妙で、氣づくことができない禪美學的幽玄と相通じ、これは無形、無色、無聲の都會美で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は複式で人体と關係ない様々なドレイフ形の形態の模糊性、暗くてよく目立たない色の模糊性、性的正体をはっきり分からぬ性の模糊性でAndrogenous lookとして現れる。最後

に、中世のオカシは禪的自由と安らぎの特性で日本美術の造現意識に基本的に位置する諧謔性で反飾り美意識の断面を表す。これは複式で形態の歪曲、極端的な量感の対比による不均衡、既存の常識を超えた意外性のふくらみなどで抽象化、單純化されて樂天的な流會美を与える。

結論的に反飾り系の美意識は飾り文化に反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極度の節制と省略を通じた簡潔美で人工美の極致を成すことであり、これは高度に仕組まれた‘意図的な貧困’——架空の貧困の演出による、凝縮された飾りの効果だと思われる。